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15일은 제40회 스승의 날(RCY 57회)이다. 올해 스승의 날은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교내에서 스승의 날 행사는 어려울 것이다. 스승의 날은 1964년에 청소년 적십자단체에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자라는 뜻에서 정하여 실천하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실천하게 되었고 국민의 문명 퇴치를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 한다.

부모는 나를 낳아 기르시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두 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는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 교육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사랑이란 대가성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가정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대가성 없이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으며,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부모의 교편을 이어받아 대가성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칠 때 스승이란 말을 하게 되며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학생을 제자라고 한다.

스승과 제자는 사랑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으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자는 뜻에서 정해진 스승의 날인데, 본의 아니게 지난 제38회 스승의 날 일부 학교에서는 촌지가 무서워 휴교하고 교문을 닫은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참사랑의 연결고리를 끊는 처사로서 스승과 제자를 괴롭히는 스승의 날이었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고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가 단 하루만이라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스승의 날이라고 본다.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스승의 날에 할 일이며 스승의 은혜를 알게 하는 날이 스승의 날이어야 대가성에 얽매지 않고 무서운 스승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부(君師父)일체란 말이 있다. 군은 임금(국가)을 말함이고, 사(사)는 스승을 말함이며 부는 부모를 말함이다. 이 세분들은 나를 훌륭한 국민으로, 효도하는 자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인으로 길러준 은인들이시다. 따라서 스승을 사부(師父)라고도 한다. 부모와 동격으로 부르는 호칭이다. 우리는 부모와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배운다는 것은 깨우쳐 익혀서 내 것을 만든다는 의미가 된다. 스승으로부터 지식 정보와 기능도 배우지만 그분들이 보여준 행동으로써 교훈은 나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해 주었고 그 꿈과 희망은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된 것이다. 나를 가르친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다. 다음은 학교라는 형식을 갖춘 집단에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이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지식정보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나에게 보여준 도덕적인 행위로서, 할 수 있는 인간 승리의 꿈이라고 본다.

컴퓨터에서 지식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덕성은 얻을 수 없다. 그러

므로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스승 하면 그때 배운 지식 정보인 것보다 그분들의 근면 성실 친절함을 내가 닮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간 것이다.

스승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고 한다. 그러한 스승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 어버이날만이라도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효를 실행하는 심정으로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제자들은 내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내는 것이 스승의 날 할 일이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스승 없이 성장한 사람이 없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승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가 제자이다. 제40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스승 찾아보기, 안부 편지 보내기, 모교 및 자녀학교 방문하기 등의 운동에 참여하고, 교육에 헌신 전념하는 우수 교원을 발굴하고, 교원의 사기 북돋우기와 스승에 대한 존경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스승의 날은 나에게 꿈과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수많은 스승님 중에서 단 한 분만이라도 찾아가 정답을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기고

비상문은 '안전의 연결통로'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마트, 백화점, 터미널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화재나 지진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비상구"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를 방문했을 때 주 출입구 외 비상구 위치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시 화재에서 비상구가 막혀 사상자의 대부분이 출입구 부근에서 발견된 사례는 우리들에게 비상구의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비상구를 폐쇄(잠금장치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불법행위에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관 주도

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상구의 상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관리해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이처럼 비상구의 개방은 곧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이고 우리 이웃의 안전이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안전 예방 활동에 동참한다면 오늘보다 더욱 안전한 내일이 오지 않을까?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 고장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사전지문등록',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자

아이와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번쯤 활발한 아이들의 행동반경 때문에 놀랐던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 앞에 보이지 않거나,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저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볼때면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다. 소중한 가족들은 잃어버렸을 때

시장 중요한 것이 시간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장소 인근을 빠르게 수색한 뒤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와 모습 등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제도가 사전 지문 등록이다.

사전지문 등록이란 2012년도부터 보호자가 18세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사진 및 인

적사항을 경찰청 운영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하는 제도이다.

등록하는 방법은 직접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사전지문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서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드림 앱 사전등록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자가 지문등록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설치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 설치 후 지문 및 사진 등을 사전등록하면 된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이다. 내아이를 지키는 마음으로 사전지문등록 신청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용주/보성경찰서경무과경위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